



### “문화재 관리국”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련한 정보를 소개하는 홈 페이지를 소개한다.

‘Culture Home Page’ (<http://www.ocp.go.kr/>)는 문화재관리국 홈페이지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 전체 정보를 사진, 동 영상, 설계도면 등 약 3만건의 문화재 정보를 한글과 영문으로 서비스하며 주제별 문화재정보, 각 지역 문화재 정보, 유형별 문화재정보, 문화재 통계정보 등을 서비스 하는 곳이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일반/교육 마당’을 클릭하면, 문화재 명칭이나 종목 및 지정번호, 지역 혹은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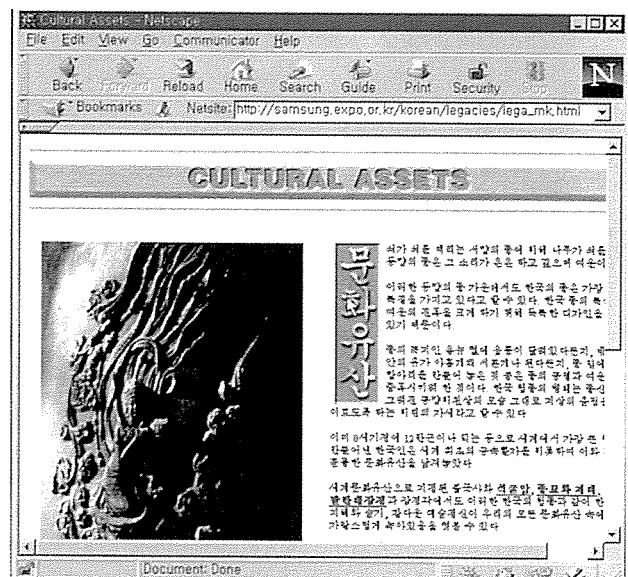
어를 이용하여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문화재의 세부 유형별 검색은 ‘전문가 마당’에서 제공한다. 가장 볼만한 항목은 세 번째 버튼인 ‘문화재 탐방’으로,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주제별 문화재 탐방이라는 소제목 아래, 신명의 길 (전통문화 창조의 현장), 충렬의 길 (민족의 기상과 고난 극복 현장) 등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 각 지역에 관련된 전통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전개된다.

다음은 ‘Cultural Assets’ ([http://samsung.expo.or.kr/korean/legacies/lega\\_mk.html/](http://samsung.expo.or.kr/korean/legacies/lega_mk.html/))를 소개한다. 삼성에서 제작한 사이트로 한국의 문화유산의 사진과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국사와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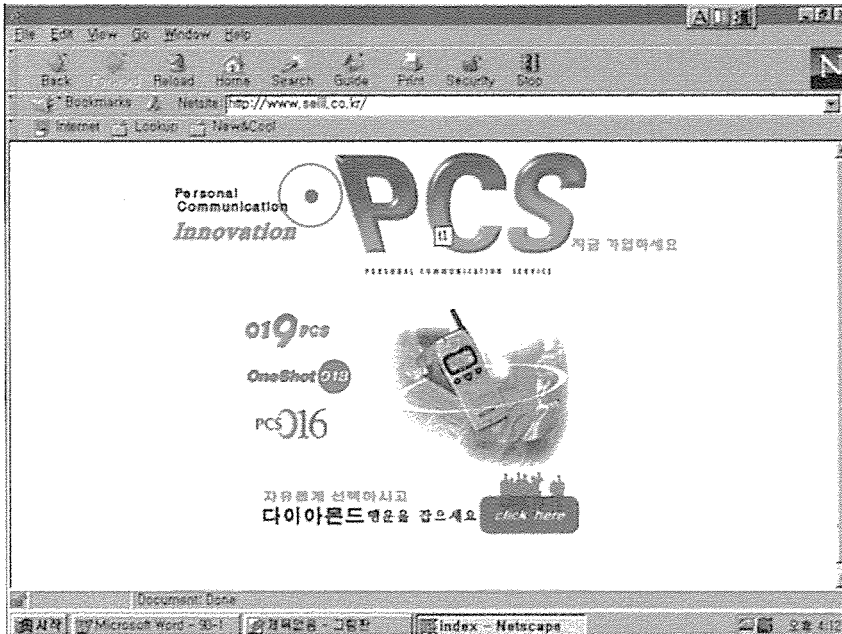
굴암, 종묘와 제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장경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성에서 제작한 다른 사이트들(징, 난장, 상생, 김수남 사진전 등)과 링크되어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는 ‘3과 한국인’, ‘선비사상’, 그리고 ‘종교사상’과 같이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각 항목에 관련된 한국의 전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숫자 3과 관련한 ‘삼월 삼짇날’, 선비와 관련한 ‘사랑방’, ‘지필묵연’ 등 유익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좋다.

이제, ‘박물관’ (<http://www.chollian.net/~kkhksl/museum.html/>)으로 가보자. 국내에 있는 각종 박물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모







점을 통해 PCS에 가입할 경우 가입비는 5천원이다. 일반 대리점을 통한 가입비는 3만원이나 케이-네트가 가입축하금으로 2만5천원을 되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

케이-네트는 또 추첨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다이아몬드 교환권과 우노에스 18K 금목걸이 메달 등의 경품도 주고 있다. 케이-네트는 이 사이버대리점 외에 인터넷검색엔진인 '유포'와 디렉토리서비스인 '코리아 디렉토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7만건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무료온서서비스 '산수도인'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 광고주들에게 큰 광고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http://www.seiil.co.kr>)

### 신세기통신 휴대폰, 영어회화 서비스

신세기통신은 현대전자와 공동으

로 휴대폰에 내장할 수 있는 영어회화 소프트웨어를 개발, 현대전자가 시판하는 디지털휴대폰 'HHP-301S'에 장착키로 했다.

현대전자가 신세기통신 전용으로 개발한 HHP-301S는 가수를 발굴해 스타로 키우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게임인 '스타만들기'도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음성통화를 하지 않을 때 혼자서 게임과 영어회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양사는 생활영어 가운데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본문장 2백개를 선별해 휴대폰에 내장하고 고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영어회화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화선 없이 음성과 데이터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통신서비스가 국내에 속속 선보여 이용자들은 다양한 새로운 통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됐다.

### 이동통신 전화요금

이동통신 춘추전국시대라고 할만큼 전국에 이동통신 열기가 넘치고 있다. 이동전화(셀룰러폰)업체인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인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다섯개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격돌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뜨겁다.

이 경쟁의 핵심은 통화요금. 요금이 얼마나 싸냐에 따라 가입자들의 발길이 오가고 있어 서비스업체의 요금인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작정 요금을 낮출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업체들은 '적정이윤

을 확보하면서 경쟁사보다 낮은 요금'이라는 '고차원 방정식' 풀기에 골몰한다.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외국에 비해 과연 어떤 수준일까. 국내 요금 수준이나 적정성을 가늠하기 위해 한국이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요금과 비교해 보자. 입체적인 요금수준 비교를 위해 명목요금과 각국의 물가를 반영한 '실질요금', 그리고 일반전화 요금과 비교한 이동통신 요금으로 각각 나눠 따져본다.

◇명목요금=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책정한 월 기본료는 1만5천~1만8천원대. OECD 가입국중 터키가 기본료 3천5백20원으로 가장 낮고 이탈리아(5천7백46.4원), 아이슬란드(6천6백88원대)가 만원대 이하이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3만원대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등과 함께 중간 정도에 있다. 통화료는 한국이 분당 백14~백56원 정도로 기본료가 가장 싼 터키(분당 2백55.2원)보다 낮아 최하위군(群)에 속한다. 통화료가 가장 비싼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으로 분당 8백~9백원대.

◇물가반영요금=SK텔레콤은 최근 유엔이 96년 6월 발간한 '국제 주요도시 소비자물가' 자료에 나타난 각국의 물가를 반영, 세계 각국의 이동전화요금을 산출해 냈다. 뉴욕의 물가지수를 백으로 했을 때 한국(백19), 일본(백64), 영국(백2), 이탈리아(94), 포르투갈(96) 등의 물가지수를 산출해 내 요금을 계산

했다. 이 결과 SK텔레콤의 월 기본료는 만7천6백47원으로 중하위권. PCS 3사와 신세기통신도 약간 낮은 비슷한 요금대인 만큼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셈이다.

한국보다 기본료가 싼 곳은 이탈리아(5천5백53원), 스웨덴(만천4백35원), 미국(만6천48원) 정도. 통화료의 경우는 SK텔레콤이 분당 백41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PCS 3사와 신세기통신의 통화료는 SK텔레콤보다 싸기 때문에 물가가 반영된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의 통화료는 OECD 가입국중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일반전화 요금 대비 이동전화 요금 비교=이동전화 요금은 일반전화 요금에 비해 대체로 비싼 편이다. 이동전화 요금을 일반전화 요금으로 나누면 이동전화 요금이 어느 정도 비싼지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6월 이같은 방식으로 아시아 14개국과 영국 및 미국의 통신요금을 조사했다. (조사기준은 97년 5월1일 당시의 요금).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은 일반전화보다 6.0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베트남(8.65배)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2.51배), 미국(3.12배), 일본(2.27배) 등은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아시아 평균(이동전화 요금이 일반전화 요금보다 비싼 비율)은 3.85배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 9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과 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 요금이 내려 이 수치가 변하지만 큰 폭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동전화 요금은 외국과의 비교 수치상으로는 싼 편이지만, 국내 일반전화 요금과의 대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외국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다소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같이 명목요금·실질요금·시내전화 요금대비 요금 등으로 구분해 볼 때 국내 이동전화요금 수준은 싼지, 비싼지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리송한 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 '인포모빌'

삼성전자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디지털 및 아날로그 겸용 휴대전화기와 초소형 개인용 컴퓨터(HPC), 개인휴대정보기기(PDA) 기술을 통합한 차세대 멀티미디어기 스마트폰 '인포모빌'(모델명 SCS-100)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CDMA방식 디지털 휴대폰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CE 2.0을 채용한 초소형 PC를 결합, 휴대전화기 뿐 아니라 휴대용 PC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중에도 자유로이 무선으로 인터넷, PC통신, 팩스전송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제품은 한국전자전에 출품되어 일반에 선보인 후 올 3월 시판될 예정이다. 시판가격은 아직 미정. 무게 297g에 150×62×31mm 크기로 손바닥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 ㉔